

社 說

학교교육의 힘

포천시 최북단에 위치한 관인고등학교 3학년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이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있어 화제다.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합격하는 예는 가끔 있지만 정시모집은 합격하기가 힘들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이유가 있다. 관인고등학교 학교장과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업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결혼 적령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입시공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교사는도 있다. 물론 이들 교사들은 모두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루종일 학생들과 함께 동거동락한 것이다.

중등교사는 담당교과가 있다. 고3 담임교사는 자신의 담당과목인 수학과목을 맡진 지도하는 열성을 보였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수확성적을 끌어올린 이 교사의 비결은 무엇일까? 관인고등학교는 농촌에 있어 고등학교 2학년이후부터는 문과이과 구분도 없다. 아니 이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2-3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이 학생은 이과지망생이다. 건축학과에 합격했다. 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과 과목을 별도로 지도한 교사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수능시험 100일 전에는 자신이 지망하는 학교에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물론 담임교사가 인솔했다. 본인이 지망하는 학교에 실제로 다녀옴으로써 100일전에 자칫 지치가 쉬운 심신을 달래고 다시 심기일전하여 대우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 수능시험 2개월 전부터는 논술특강을 사물에 있는 우수와 완에 가서 일요일마다 수강하는 열성을 보였다. 여기에는 관인중고등학교 총동문회의 도움이 컸다. 교사들의 열성적인 지도와

학생들의 자발한 노력을 익히 알고 있는 총동문회는 특강수강료를 지원해 주었다.

여기에 학교장의 학교에서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협력의 열광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환경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관인중고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 넓은 시설물을 교체하고 운동장 시설 등을 수리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컨테이너박스에서 식사를 하던 학생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포천시와 포천교육청에 부탁하여 예산을 확보해 멋진 급식실을 만들어 3월이면 모든 학생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노력이 주변에 입시마련 하나 없는 관인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 합격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는 학교교육의 힘을 보여준 것이다. 때때로 이명박 정부 는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관인고등학교를 모델로 삼아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새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리라 기대한다.

환경 탁만 하지 않고 부족한 교육여건을 도시의 좋은 시설을 이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관인고등학교의 사례를 거울삼아 학교교육 현장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새정부의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인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와 학교장, 그리고 고3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과정을 하나의 모델로 널리 전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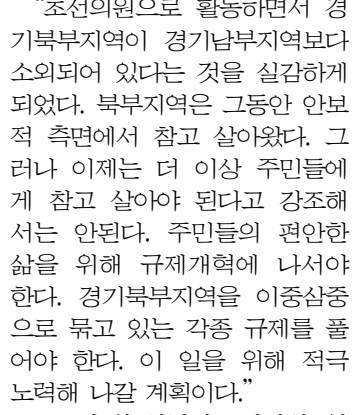
등록번호 경기 다 9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북로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9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轉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008 새해설계 ② 경기도의회 이우형 의원

경기북부지역 규제 풀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포천시 발전에 경기도예산 투입 위해 의정활동하겠다”



“조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이 경기남부지역보다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북부지역은 그동안 안보적 측면에서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에게 참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해 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을 이중삼중으로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1월 7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경기도의회 이우형(51·사진) 의원이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대외산리 북부지역발전추진전진 예산 5억6천만원, 2월엔 포천체육공원 예산을 경기도지사 시책추진토론회 세우는데 노력했으며 산간기 중엔 포천중문의대~풍곡동간 도로 건설사업비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 경기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중인 이 의원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관

도예산을 확보해 지역발전이 빠지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 의원은 “포천에 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경기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 의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정부 탄생에 기대하는 바가 클 것이다. 관여의원이지만 주민들의 고충이나 경제적 고통을 나누면서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신문에 대해 이 의원은 “신문사가 알맹이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본인의 역할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도움을 주는 일을 추진하는 포천신문사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며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동참하는 뜻에서 적극 지원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고향 포천을 위해 특히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농민들을 위해 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징조형물 제막

진실과 질서, 화합 3대 이념 시민전파 위해

가산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월 4일 유급차수지 부근 소공원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바르게살기 상징 조형물은 진실과 질서, 화합이라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취지를 시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날 제막식에는 가산면바르게살기협의회 이병갑 포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가산연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징 조형물은 가산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실시할 각종 공연과 지역기업인 후원금 등 총 1천여만원으로 제작했다.

조형물 설치는 개개인의 진실된 마음이 사회전체로 퍼져 나갈 때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회, 공민과 사익이 조화되는 사회를 이룬다는 진심, 일상적인 교동법류를 지키는 정신이 보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

데 이념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제작했다.

이날 제막식에는 가산면바르게살기협의회 이병갑 포천시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과 가산연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바르게살기협의회 상징 조형물은 가산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40여명이 실시할 각종 공연과 지역기업인 후원금 등 총 1천여만원으로 제작했다.

조형물 설치는 개개인의 진실된 마음이 사회전체로 퍼져 나갈 때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회, 공민과 사익이 조화되는 사회를 이룬다는 진심, 일상적인 교동법류를 지키는 정신이 보여 조화로운 사회를 이



가산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2월 4일 유급차수지 부근 소공원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념인 진실, 질서, 화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제막식을 가졌다.

“포용하는 政治 실현에 최선”

최병훈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 연천군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한 나라당 최병훈 예비후보가 지난 2월 4일 신음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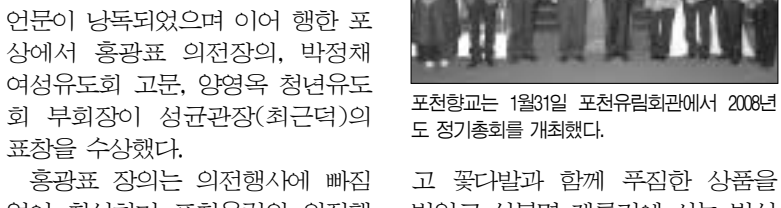
이날 개소식에는 고려대 동문과 최병훈 예비후보의 가족과 친지, 지지자 등이 참석해 최 예비후보의 선전을 기원했다. 최병훈 예비후보는 참석자들에게 “포천과 연천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가면 잘사는

국민, 강한 나라를 추구하는 이명박 정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예비후보는 “입법활동은 대학과 연구소와 연계해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경비계획법 등 개발과 투자의지를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용하는 정치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훈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한 나라당 최병훈 예비후보가 지난 2월 4일 신음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포천유림孝子孝婦 효행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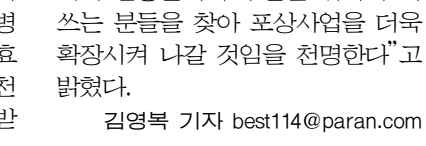
포천향교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포천향교(경교 정가음)는 1월 31일 11시 포천유림회관에서 78명의 대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행사내용은 국민의례에 이어 김만기 장의에 의하여 윤리선언문이 낭독되었으며 이어 행한 포상에서 총괄표 의정장, 박정재 여성유도회, 양정숙 청년유도회 부회장이 상금관장(최근덕)의 표창을 수상했다.

총괄표 장의는 위원행사에 빠짐 없이 참석하며 포천유림의 의정행사를 훌륭하게 이끌었으며, 박정재 고문은 여성유도회장 재직시 여성유도회를 활성화시키고 다도문화의 보급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한 공로로, 양정숙 부회장은 원년유도회 창설회원으로 참가하였으며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등 가정을 훌륭하게 이끈 공을 인정받았다.

계속된 효자효부 및 선행 표창에 서는 선단동에 거주하며 남편도 없이 모범가정을 이룩하며 거동도 못하는 중병의 노시모를 정성껏 돌보아 주위의 칭찬이 자자한 묘의제와 관련된 초과리에 살며 93세의 선명 중의 노모를 극진히 간병하여 효행의 귀감이 되는 이수옥씨가 포천향교 정가음의 표창을 받았다.



포천향교는 1월 31일 포천유림회관에서 200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고 꽃다발과 함께 주진한 상품을 받았고 선복면 캐리커에 사는 박성환씨는 부모님께 효행이 지극하고 이웃들에게 경로정신을 실천한 청년지도자로, 내촌면 윤리대에 사는 최은자씨는 중병의 시부모를 정성껏 간병하며 교통사고를 입은 남편에 대한 정성을 다하며 모범 가정을 이끈 공로로 유도회포천시지부 이은주 회장의 표창을 받았다.

정가음 전교는 “우리 유교는 일찍이 유교는 효제중신(孝悌忠信)의 실용정신을 생활화한 선진사상이라며 앞으로 포천향교는 어두운 곳에서 전통문화의 구현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을 찾아 포상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군·자치단체 소식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30일 ~ 2월 10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